Exercise 01

다중 언어의 현실은 여러 방식으로 생겨난다.

정착민이든 침략자이든 간에, 이주자는 여러 언어를 접촉하게 하고, 때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팽창에서처럼 많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는 비교적 적은 수의 병사, 상인, 관료,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군사적, 종교적, 혹은 경제적 힘을 통해 그 존재가 느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문화에는 이 점에서 다른 문화보다 더 명시적인 정책이 있었지만,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피정복 혹은 식민지 집단에게 매력적이고 때로는 필요하게 만들었다.

팽창주의 체제의 언어는 지역 수준에서 실용적인 이점과 문화적 위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요소는 원래 지배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 식민지 지역에 존재하는 유럽 언어의 이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고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Exercise 02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프랑스 혁명에 관해 써야 할 논문이 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역사학 교수인데, 그가 박사 과정을 밟을 때에는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를 위해 열 개의 인용문을 모으는 것조차도 대단한 작업이었다.

이 학생의 경우에, 그녀가 프랑스 혁명에 관해 읽은 적이 있는 모든 논문과 책은 자신의 전자 메모리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수업 중에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와 4편의 논문 외에, 그녀는 수년에 걸쳐 접한 또 다른 23개의 참고 문헌을 끄집어낸다.

그녀는 몇 가지 요점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옛 논문에서 몇 개의 인용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온종일 걸려 했을 일이 그녀에게는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녀의 논문은 더 탄탄할 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그녀의 기억도 강화되었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녀의 이해 폭은 더 넓다.

Exercise 03

사람 간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이 의도적이지만 의도되지 않은 많은 신호도 발생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어떤 사람은 눈썹을 잠시 치켜올린다.

이 표정은 ‘(인사로) 눈썹을 찡긋하기’라고 불린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썹 찡긋하기를 행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조차 그것이 인사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당시 발언된 말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을 바꾼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눈썹 찡긋하기를 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Irenaus Eibl-Eibesfeldt가 입증한 바와 같이, 눈썹을 찡긋하지 않고 한 인사는 발언한 말이 심지어 동일한 때에도 덜 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문화권의 사람들은 눈썹 찡긋하기를 하지 않으며, 이것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 있어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다른 많은 사례가 있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무심결에 신호로 보내지고 또 받게 된다.

Exercise 04

인류가 공유한 진화의 역사는 모든 인간의 신체가 비슷하며 모든 인간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Dylan Evans는 이것을 ‘인류의 심리적 통일성’이라고 부른다.

여섯 가지 기본적인 감정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생물학적 반응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자극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타고났다는 의미이다.

우리 뇌는 경험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그 경험을 평가하며 그 무의식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 낸다.

이는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ul Ekman은 ‘자동평가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여,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생리적 반응을 만들어 내는 자동 평가 기제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마주칠 때,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신체적, 감정적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분노로서 경험하는 느낌은 신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생리학적 준비 과정이다.

Exercise 05

어느 시대나 한 사회의 전문가들이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이해의 본질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은 뉴턴 시대에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수의 다양한 원리를 적용했고, 상대성 이론 및 양자 역학과 관련된 획기적 발전은 물질계에 대한 현대의 이해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오와 가까운 것보다 소포클레스가 셰익스피어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나 현명 한 노인이 영리한 젊은이보다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은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다.

예를 들어, 정신 분석학적 발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행동에 대한 증진된 이해는 무의식의 동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Exercise 06

유아어(유아를 대하는 말)의 일반적인 정서적 어조는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더 높은 연령대 유아의 부모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 어조에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엄마가 급격히 내려가는 억양으로 “안 돼”라고 말하면 엄마가 어떤 것이 못마땅하다고 아기에게 말해 주는 것이지만, “그래애~”라고 정답게 속삭이면, 그것은 인정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억양의 특징이 인정과 못마땅함을 표하기 위해 영어에서부터 이탈리아어, 일본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에서 엄마에 의해 사용된다.

유아가 엄의 말의 억양을 사용하여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Anne Fernald에 의해 일련의 기발한 실험에서 분명히 입증되었다.

한 실험에서 8개월 된 유아에게 멋진 장난감이 주어지고, 그들의 엄마가 “그래, 착하다” 혹은 “안 돼, 만지지 마”라고 말했다.

각 유형의 발언 절반은 정답게 속삭이고 격려하는 어조의 목소리로 말해졌고 절반은 날카롭고 금지하는 어조로 말해졌다.

유아는 엄마가 실제로 한 말과는 상관없이, 엄마의 목소리가 격려하는 어조일 때 장난감을 더 많이 가지고 놀았다.

Exercise 07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과업을 넘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그들은 성장하도록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그들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는 것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도와준다.

몇몇 기업에는 일이 한가하거나 사람들이 지시를 기다릴 때, 매일 하는 일에서 벗어나 다른 과업을 맡을 수 있게 하는 한가한 시간의 목록이 있다.

이러한 과업들은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집된 자료나 연구 조사, 즉 여러분이 시간만 있다면 완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발판으로 삼아 더 발전시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정에 잠시 비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누구든 한가한 시간의 목록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과업이 수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승인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Exercise 08

쇼핑에 대한 우리의 열광은 ‘세계 상업의 중심’이 된 도시인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서기 3세기쯤에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았다.

이 전례가 없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Forum Holitorium’에 있었던 청과물 시장과 ‘Forum Boarium’에 있었던 우시장과 같은 거대한 창고와 시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먹거리로만 만족하지는 않았다.

중심가나 쇼핑몰에서 진열장의 상품 진열이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전문 점들이 로마에서 처음 출현했는데, 이곳에는 책을 파는 가게, 보석과 가구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로마에는 심지어 (‘horrea’라고 알려진) 최초의 슈퍼마켓도 있었다.

많은 로마인들은 곧장 거리로 통하고, 집뿐만 아니라 가게나 작업실로도 쓰인 한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tabernae’에서 살았다.

실제로 오늘날 옛 로마의 골목과 광장을 둘러보면 보통 창유리나 문이 없이 거리로 통하는, 그리고 셔터를 사용하여 밤에 봉쇄되는 가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